

[보도자료] 쿠팡, 배송직원 역량 강화 인정받아 산업인력공단 은 상 수상

2020. 9. 20.



쿠팡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사업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CS 배송전문가'는 국내 최초의 배송 관련 자격증으로 쿠팡친구로 입사해 직무교육을 받고 운전이론, 실기 등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 남기영 쿠팡 트레이닝 디렉터(사진 가운데),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이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업내 자격검정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배송직원 역량 높여
- 인증 획득 1년 만에 약 6000명의 'CS배송전문가' 배출
- 빠르고 친절한 배송의 대명사, 로켓배송 서비스의 질 높일 것

2020. 09. 20. 서울 – 쿠팡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사업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업 수상은 쿠팡이 전문성을 갖춘 6000여 명의 CS배송전문가를 양성해 배송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쿠팡친구는 비대면이 강조되는 최근 더욱 주목받는 직군으로 쿠팡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용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려 현재 1만 명이 넘는 쿠팡친구가 근무중이다.

'CS배송전문가'는 2019년 사업 내 자격검정 인증제도로 도입된 국내 최초의 배송 관련 자격증으로 직업능력에 따라 2단계(Fresh-Senior)로 구성된다. 쿠팡친구로 입사해 직무 교육을 받고 직무이론, 운전이론, 운전실기 등 테스트를 통과하면 CS배송전문가 프레시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후 일정 근무기간과 업무 성과를 충족하면 교육 프로그램 수료와 테스트를 거쳐 순차적으로 CS배송전문가 시니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검정이 실시된 2019년 5월 이후 5793명이 CS배송전문가 프레시, 627명이 CS배송전문가 시니어 자격을 획득했다.

남기영 쿠팡 트레이닝 디렉터는 “쿠팡친구가 더 좋은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도 배송 숙련도와 안전운전, 고객응대 등 쿠팡친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친구는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직원으로 주5일 52시간 근무와 연 130일 휴무 제공 등의 근무조건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택배기사와 달리 쿠팡친구에게는 차량을 비롯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최근에는 배송업계 최초로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쿠팡친구와 자녀의 학자금, 보육비 지원까지 나섰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